

Removing the Bitterness of Suffering 고통으로부터의 쓴마음을 제거하기 (시편 44)

What Keeps us from Bitterness?

The distress that has come upon the world generally & God's people in particular has been building over the last century. Statistics tell us that the number of Christians martyred over the last century (26 million) exceeded the entire number martyred over the previous 1900 years (14 million).

We trust that our trials in God's providence strengthen our faith & refine us to Christlike character... But what about the extreme kinds of suffering that.....might make us wonder whether God has either abandoned or cursed us.....where the suffering is unrelenting, even to death?

Well, we know that this was a particular struggle for God's servant, Job. Why would an all powerful, good God bring such evil upon that faithful servant? Job's friends said it was because of some unconfessed sin in his life. Job kept protesting against them....even against God even to say that the Lord was in the wrong.

There we saw that despite sometimes sinning in his suffering, overall, Job not only glorified God in remaining faithful but that *God glorified Job* in using him to overcome evil.

The author of Psalm 44 — from a similar 'Job-like' perspective wrestles with the problem of God's silence in the face of suffering.

What will keep us from bitterness.....even remove bitterness in our lives over the kind of suffering where God seems silent or even unconcerned about our struggles?

무엇이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이 환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한 세기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 (2,600 만 명)가, 지난 1900 년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 (1,400 만 명)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란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그러나 죽음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환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환란을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저주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이와 비슷한 환란을 겪었음을 봤습니다. 왜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인 욥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이는 욥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박했고...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여기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죄를 범했어도, 욥은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또한 하나님은 악을 이기기 위해 그를 사용하여, 욥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4 편은, 이런 욥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문제와 씨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쓰라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며, 이런 쓰라린 마음을 제거할까요?

In the midst of particular grief or severe trial we can wonder if God has become uncaringly silent or disinterested. When we start to believe those thoughts, we can't help but become bitter? Well, what hope is there not to become bitter in the face of suffering? Understanding God's purposes in our suffering – from the small setbacks to the major calamities of life is the key. It's the secret to suffering well. That's what Psalm 44 shows us. It shows us how our walk with God can grow strong— particularly at those times when the evil seems overwhelming & God doesn't care.

3 sections — After recounting the history of Israel's good past, the Psalmist laments the bad present & feels the ugly disconnect b/w the two to finish with a cry to God for His saving intervention once more. By the end, we see that God's ultimate purposes in the trials of life – have everything to do with His glory in Christ. As we grasp such profound truth He works to remove bitterness.

Remembering the Good (1-8)

First thing when we look at a Psalm is where possible to read it in its original historical context. 'Sons of Korah' were the descendents of Kohath, the 2nd son of Levi – who had priestly duties of caring for the Tabernacle sanctuary (Num. 3-4). Under David they also had a share in the Temple singing & security operations (1 Chron 6 & 26).

This is a communal Psalm of lament. The most likely context for it is either in King Hezekiah's reign around 630 BC or late in Josiah's reign ~ 610BC because both of those times see faithfulness alongside national calamity that the Psalmist mentions. First thing is that the Psalmist remembers the good... V2 'With your hand you drove out the nation; you crushed the peoples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이런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해하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 시편 44 편이 이런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오늘 구절은, 특별히 악이 우세하고, 하나님께서 무심한 것 같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건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3 부분을 구성돼 있는 오늘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좋았던 역사의 때를 이야기한 후, 시편 기자는 현재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외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며, 우리가 이런 큰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쓴 마음을 없애지게 합니다.

좋았던 때를 기억하다 (1~8 절)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때, “고라 자손”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탕의 후손들입니다...그리고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4). 그리고 다윗의 때에는, 성전 노래와 보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역대상 6&26 장).

이 시편은 공공적 한탄의 시로서, 히스기야왕 (630 BC) 아니면,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610BC) 때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시대 모두, 이스라엘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시편 기자는 우선, 좋았던 때를 회상합니다...2 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V3 'not by their sword...it was your right hand, your arm (a concise way of mentioning God's covenantal deliverance) along with v4 'You are my King and God who decrees victories for Jacob' & v5 'through you we push back our enemies; through your name we trample our foes.'

In Deu.t 6-9, the Lord recounts the blessings of covenant faithfulness & the punishment for unfaithfulness...Deut 6:18, 'you shall do what is right and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V6 'I do not trust in my bow, my sword does not bring me victory' – again, it's covenant language Deut. 8:17, 'Beware lest you say in your heart, 'My power and the might of my hand have gotten me this wealth' –

it wasn't because Israel were a mighty nation or because of their righteousness that Yahweh delivered them from Egypt & brought them into the land ... God is the one & only Saviour: v7-8 'you give us victory over our enemies, you put our adversaries to shame. In God we make our boast all day long, and we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Israel's side of the deal was to respond to God's grace in obedience... they couldn't save themselves

The Psalmist & his circle were faithful, not trusting their own strength – but God's...He reminds God of His own covenant faithfulness...Israel's forefathers depended on God's covenantal faithfulness ... God gave them military victory. The Psalmist & the faithful community were depending on God in the same way...but instead of victory comes defeat...In this comes the contrast of the 'bad'

3-5 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뵈으리이다”

신명기 6~9 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할 때 누릴 축복들과 신실하지 못할 때 받을 형벌에 대해 말씀합니다...그래서 신명기 6:18 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6 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이는 다시 한번 나타나는 언약적 용어로 신명기 8:17 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이거나, 그들의 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7~8 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이 구절을 통해 보듯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와 그의 주변 인물들은 신실한 자들로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의지했고...하나님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기자 또한 자신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그들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Lamenting the Bad (9-16)

In 9-16 this problem grows with each line of the poem; v9 'But now you have rejected and humbled us; (and how?) you no longer go out with our armies'. It's not just God's inactivity in war. The next 7 v's point to God's active power against His people...

From v10 'You made us retreat before the enemy, and our adversaries have plundered us. You gave us up to be devoured like sheep and have scattered us among the nations. You sold your people for a pittance, gaining nothing from their sale. You have made us a reproach to our neighbours, the scorn and derision of those around us. You have made us a byword among the nations; the peoples shake their heads at us.

In Deut 28, the Lord tells Israel what will happen to them by way of judgement in the event of disobedience to the covenant... Deut 28:64 'the Lord will scatter you among all peoples'... Deut 28:37, 'You shall become a horror,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the peoples where the Lord will lead you away.'

It's not just that God remains inactive – but He's bringing about what appear to be covenant curses — not for disobedience, but obedience!

The resulting effect is utter humiliation; 15. My disgrace is before me all day long, and my face is covered with shame 16. at the taunts of those who reproach and revile me, because of the enemy, who is bent on revenge.'

고통 가운데 한탄하다 (9-16 절)

그들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가 9-16 절에서 나타납니다...9 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굴욕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터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패배를 그냥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백성을 그 권능 가운데 대적하시기 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10~14 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 앞에서 후퇴하게 하시므로 그들이 우리의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주는 우리를 도살장의 양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혈값에 팔아 넘기셨으나 그것으로 얻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들입니다.”

신명기 28 장에서,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 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64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세계에 흩어 버리실 것이며”라고 말씀하고...37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 각처에 흩어 버리실 것이므로 여러분은 모든 민족들에게 놀람과 비웃음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명기에 배경에서,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패배를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로, 이들은 큰 수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15~16 절 “내가 모욕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내 원수들의 저주와 비난 때문입니다.”

It's nothing less than a heartfelt, honest lament at the dire situation that God has seemed to not only permit, but to sanction.

We may readily tell those with whom we're closest about the things they might do or say that have hurt us – but when was the last time you poured out your heart like this to God in the face of disappointing or tragic circumstances?

Our first reaction to major disappointments or tragedy can at often times be not to remember God's faithfulness & grieve the situation.... Instead we might find ourselves panicking, grumbling or trying to regain control without reference to God.

Honest lament to the Lord....especially when there's an apparent mismatch between faith & experience is our vital faith response. God wants us to be real with Him – we do that like the Psalmist as we remember the good past of His salvation history, & lament our bad situation before Him.

Feeling the Ugly (17-22)

v17 'All this happened to us, though we had not forgotten you or been false to your covenant. Our hearts had not turned back; our feet had not strayed from your path.'

The Psalmist feels the ugly mismatch between faith &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

Deut. 8:19, 'if you forget the Lord your God and go after other gods and serve them and worship them, I solemnly warn you today that you shall surely perish.'

That's the very thing the Psalmist says they had not done....& yet they were perishing....the covenant curses for disobedience appeared to have come upon an *obedient* people....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가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그의 큰 슬픔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이 실망스럽거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셨나요?

우리 삶 가운데 큰 실망이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반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 가운데 슬퍼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패닉 하며, 하나님 없이 그 상황을 다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험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을 때,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울부짖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의 진심이기를 원하십니다...우리가 그 앞에 진실할 수 있음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 앞에 울부짖을 때입니다.

17~18 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 배경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거 처해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추한 불일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상응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므로 오게 되는 이 심판의 저주가, 꼭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v19, '(But) you crushed us and made us a haunt for jackals and covered us over with deep darkness. If we had forgotten the name of our God or spread out our hands to a foreign god, Would not God have discovered it, since he knows the secrets of the heart? Yet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The lament comes about because the present events of defeat & destruction don't match with God's covenantal faithfulness – & so the result is an ugly, incomprehensible mismatch.....challenging faith in the covenant community. It's a paradox — an apparent contradiction — to God's glory — evil is only problematic because God is pure & all-powerful.

Rather than the presence of evil undermining God's existence....it's one of the most compelling arguments against atheism. Atheism has no ultimate basis to say that anything is 'wrong.' If morality is merely relative to the culture or the individual, at best what gets defined as 'good' depends on the majority view or becomes a matter of opinion or preference. The atheist has no logical right to say that murder is wrong. Evil can only be evil because God is good. Atheism has no solid basis for morality.

The Psalmist feels the depth of the present bad & its ugliness only because God is perfectly good. Knowing God is omnipotent & gracious is the very reason we can know that in the situations when we suffer there must be something much deeper to the suffering of believers than we might otherwise be tempted to believe. This alone ought to help us move towards God rather than retreat from Him in ill-temper.

19~22 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들끓는 광야로 내몰아 죽음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이유는, 이들이 겪고 있는 패배와 파괴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이런 상황은 그들에게 추악하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역설이며, 명백한 모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현 상황을 받아 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하기보다는 무신론을 반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무신론은 어떤 것이든 “틀렸다”라고 말할 궁극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도덕성이 문화 혹은 개인에게 상대적이라면, 선하다는 것은 그저 다수의 달려 있다든가, 하나의 의견이나 선호의 문제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 살인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적 기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이 나쁜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은 도덕성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악재와 그 추함을 아주 깊이 체험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큰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는 우리가 분개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When things go wrong it can be tempting not to seek the Lord – because we doubt His goodness or power, & form the wrong conclusion that He won't hear much less answer our prayers. But God wants us to recall His goodness demonstrated in salvation history...He has wired us to lament the bad & feel the ugliness of evil

Covenantal Pleading (23-26)

As we see the Psalmist do this, it leads him to cry out to ask God why He's silent (v23) Why He's hidden (v24) ... why even He might seem to have forgotten their plight (v24)....

The ugly mismatch between the bad present & God's demonstrated covenant faithfulness even leads to detail the desperate situation (v25)...None of this is so that the Psalmist would conclude with bitterness....but to urge God to intervene (v26), 'Rise up; come to our help! Redeem us for the sake of your steadfast love.' That is, for the sake of His covenant love — His faithful love

The Secret to Suffering Well

Trusting the Lord's faithful promises — His covenant love in Christ — that He has ultimate glorious purposes in, through & beyond our trials is what will replace bitterness with joy.

God sometimes afflicts us with the particular purpose of breaking the idols that would otherwise take over our heart...& destroy our relationships...especially our primary relationship with the Lord. He always strengthens us through trials. The Lord in His power remains entirely good with His purposes in our suffering...& unfailingly, His overarching purpose — even in the severe suffering that brings death.....is for His glory...

삶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의 선하심이나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 결론을 내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혹에 빠집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이신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악을 한탄하고, 그 추악함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언약에 호소하다 (23-26 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음 가운데, 왜 그가 침묵하시며 (23 절)...왜 그가 숨어 계시고 (24 절)...왜 그들의 고통을 잊으시는지 (24 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가운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부조화한 상황은, 그들로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25 절)...그러나 이런 절망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쓴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간청하도록 만듭니다...26 절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잘 고통 받는 비결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고난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음을 믿음이, 우리의 이런 쓴 마음을 기쁨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우상을 깨뜨리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함께, 주님은 그 권능 가운데 완전히 선하신 분이요...죽음을 불러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위대한 목적은, 그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As for Job...as for the Psalmist & God's faithful people of old.....in light of eternity...our sufferings are for God's sake — to demonstrate His sustaining might in us – the treasure of the gospel in jars of clay...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Rom 8:35ff.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f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In the light of our crucified Christ – persecution & all manner of suffering even to death is overturned...so that all who might seem defeated & conquered are, in Christ victors....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suffering & persecution, the Church flourishes what by worldly reason would surely see us destroyed, God uses for our growth & ultimately His glory. Know that God's purpose in every trial we have undergone, are undergoing or will undergo was, is & will be for His glory in Jesus Christ.

As we trust Him, even to death....we can know it's for His sake. As we show joy & courage under severe trial...His glory shines...to show that His grace is sufficient for His power is perfected in our weakness.

God reminds us of His good, tempers the bad & transforms what would only otherwise be ugly as we follow Jesus Christ's footsteps for His glory.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이는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서입니다...이는 토기 그릇 안에 담겨있는 존귀한 복음이며...비록 우리의 겉 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후 4:16).

로마서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볼 때, 박해와 죽음까지에 이르는 모든 환란은, 뒤집힌 것입니다...그래서 비록 우리가 패한 것 같이 모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이며...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 교회는 번창합니다...세상의 눈에서 우리는 망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의 성장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었고, 겪고 있으며, 앞으로 겪게 될 모든 환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영광을 위한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기까지 그를 신뢰한다면...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담대함을 나타낼 때에...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밝히 빛나, 그의 은혜로 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의 권능으로 온전해지기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을 상기시키시며, 우리의 악함을 누그러트리시며, 추해질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